

중대재해처벌법 1년... '법 적용 사업장' 사망자 되레 늘어

작년 사망자 644명...39명 감소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8명 ↑
 대형사고 많아...사망 절반 건설업
 229건 중 34건 송치...판결 '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년 연말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229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229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388명(381건)

으로 전년 435명(431건)보다 47명(10.8%) 줄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로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

고(2명 이상 사망)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작년 39명(13건)으로 77.3%나 증가했다.

무너짐 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1월 11일 광주 주상복합 붕괴로 6명이 숨졌고, 1월 29일 양주 채석장 붕괴로 3명, 10월 21일 안성 물류창고 붕괴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폭발의 경우 작년 2월 11일 여수 산업단지 열교환기 폭발로 4명, 9월 26일 대전 아웃렛 화재로 7명이 사망했다.

작년 전체 사망자 644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이 341명(32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제조 171명(163건), 기타 132명(120건) 순

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건), 인천 35명(35건)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년 연말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229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229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다.

177건은 현재 내사·수사 중이다. 검찰은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다. /연협뉴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19일 정읍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및 세정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광주국세청 제공

광주국세청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장 방문

정읍세무서서 납세자 의견 청취

광주국세청은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1~27)을 맞아 일선 직원을 격려하고 신고현장 및 세정지원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19일 정읍세무서를 방문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둘러보며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로 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

했다. 윤 청장은 이날 "더 많은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등 비대면 신고방법을 활용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신고도움창구에서는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에 대해 1:1로 지원하는 등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광주국세청 관할 광주전남북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80만2,000명으로 전년 신고인원(76만명)보다 4만2,000명 증가했다. 법인사업자가 11만6,000명, 개인사업자가 68만6,000명(일반 44만9,000명, 간이 23만7,000명)이다.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25일이지만 설 연휴를 감안해 27일까지 2일 연장됐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다. 27일은 24시까지 운영한다. /이연수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오늘 담양 창평시장서 상인 격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이 20일 담양군 창평시장에서 설 명절 맞이 화재피해 점포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19일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담양 창평

시장은 지난해 12월 화재가 발생해 12개 점포가 전소되고 그외 점포도 화재 그을음 및 소방용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지난 5일부터 시장 인근에 위치한 공영시장에 임시시장을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직접 제작한 장바구니와 핫팩을 나눠주며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 및 충전식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행사에서 구입하는 상품(참기름, 참깨, 찹쌀 등)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희망의 집'에 기부할 예정이다.

조종래 광주중기청장은 "온누리상품권 구매하도록 상향해 특별판매를 시행하고 있으며,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상의,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 호응

작년 12개사 88억원 납품실적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광주시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12개사 모두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됐으며, 약 88억원의 납품실적을 기록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공공조달시장은 2021년 184조원 규모, 국내 총생산의 9.6%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2018년 141조원 대비 30.5% 증가했다.

조달업체수는 2018년 40만915개사에서 2021년 50만2,710개사로 25.4% 증가했으나 지역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상의의 최종안 상근부회장은 "지역기업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의 협의를 통해 2023년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 지역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

경제용어사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정부조달 관련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는 제도.

기존의 최저가 낙찰자 선정방식은 제품의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도입됐다.

에 더 쉽게 진입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전남우정청, 남구노인복지관에 200만원 기탁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전남지방우정청은 설 명절을 맞아 지자체와 연계한 독거노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19일 밝혔다.

전남우정청은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 독거노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구조·구급조치를 지원하는 '응급안전심서비스' 수행기관인 남구노인복지관에 후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응급안전심서비스는 게이트웨이, 화재·가스 감지기, 응급호출기, 심박·호흡 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활동량과 화재 등 사고 발생을 감지하고, 유사 시 119에 자동 신고

하는 안전관리 체계다.

지자체가 서비스 대상 독거노인을 선정하고, 지역센터와 수행기관을 통해 독거노인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남구는 970여 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다.

후원금은 응급안전심서비스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송관호 전남우정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남구청과 연계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보해장학회, 71명에 장학금 4,970만원 전달

11개 기관서 중·고·대학생 추천 41년간 3,897명에 약 36억 지급

보해양조는 최근 목포 본사 사무실에서 보해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회 전달식에는 보해장학회 박철수 이사장을 비롯해 장학생과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보해장학회는 광주전남 대학생과 중·고교생 등 71명에게 총 4,970만 원을 지급했다. 장학회는 전라남도 체육회와 목포아동원 등 총 11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했다.

지난 1981년 보해양조가 설립한 보해장학회는 광주·전남 학생들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이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41년 동안 보해장학생으로 선발된 누적인원은 3,897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36억7,690만 원에 이른다.

보해장학회 박철수 이사장은 "보해양조 설립자인 고 임광행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보해장학회는 지난 40여년간 장학사업에 헌신해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다"며 "교육은 미래사회를 위한 가장 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롯데아울렛 남약점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아울렛 남약점, 명절 사랑 나눔 활동

무안 종합복지관에 생필품 전달

롯데아울렛 남약점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롯데아울렛 남약점 사뮈트봉사단은 이날 무안지역 소외계층 50여 가구를 위한 설 생필품

세트를 직접 제작해 복지관에 전달했다.

김광희 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